



정교회 주보



성 프로코피오스 순교자

마태오 제 2주일

성 안드레아스 크레타 주교

제 1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서 2:10~16 / 봉독서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 108, B 3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테오도시아 순교자

우리교회에서 7월 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테오도시아 순교자는 성 프로코피오스 대순교자의 어머니입니다. 우상숭배의 예식에 매료되어있던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황제에게 고발하였지만, 나중에는 아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의 남편 크리스트포로스는 아내가 아직 어릴 때 안식하여 테오도시아는 과부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인 프로코피오스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이미 이 두 사람을 위해 더욱 영광스러운 자

리를 마련해두셨습니다. 성 테오도시아는 잘못을 뉘우친 후에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참을성을 칭찬하였고, 그들의 순교를 행복으로 여겼고, 그들의 상처를 나누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학적 지식과 약으로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프로코피오스는 감옥에서 어머니의 활동을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착하고 신중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 테오도시아는 결국 자신의 아들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케사리아, 3세기)

준비된 삶

우리는 내일을 위해 또한 가보지 못한 미래에 더 행복하게 편하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사도로 부르셨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어부로서 살고 있었으나

주님의 초청에 주저함이나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생업과 가족으로부터 떠나 구세주이신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들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용기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한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의 기름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더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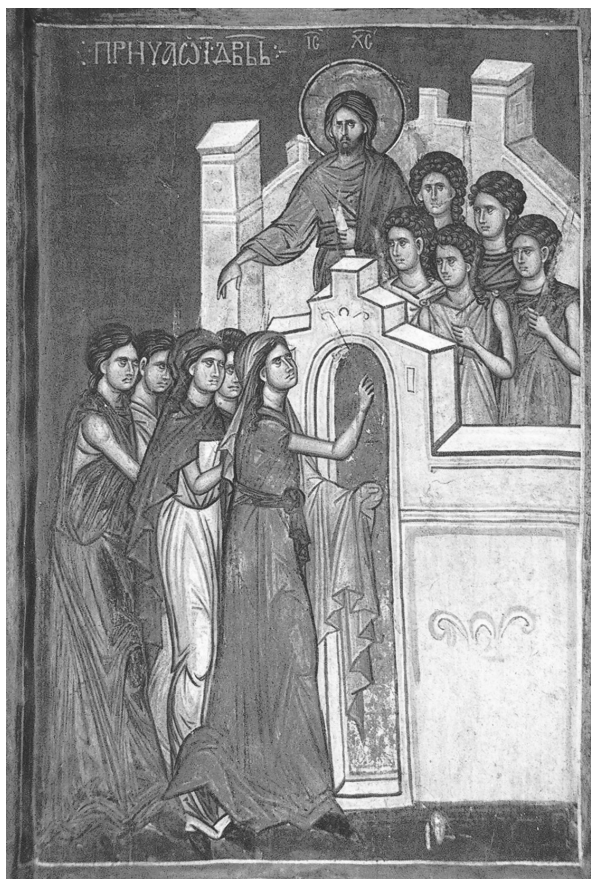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등은 기름이 다 소진되어 꺼져 가고 있었으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더 채움으로써 끝까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갖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열한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지 모른다. 따라서 사도들처럼, 막달라 마리아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된 교회와 영적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성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고 화해하는 온화함,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선과 같은 덕망으로 천상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천상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트리폰 수도원장(미국 워싱턴주 바순[Vashon] 섬의 정교회수도원 원장)

여러 해전 저는 숲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젓한 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저는 조금 놀랐지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곤 하느님의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다가, 가지고 온 샌드위치와 커피를 함께 먹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가방을 열고는 제 점심도시락을 꺼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는 제게로 향하더니 총을 꺼내 보여주며, 자살하려고 이렇게 혼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긴 머리칼과 수염, 그리고 시커먼 옷을 걸치고 나타났을 때, 그는 저를 하느님의 천사로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르려던 행위에 대해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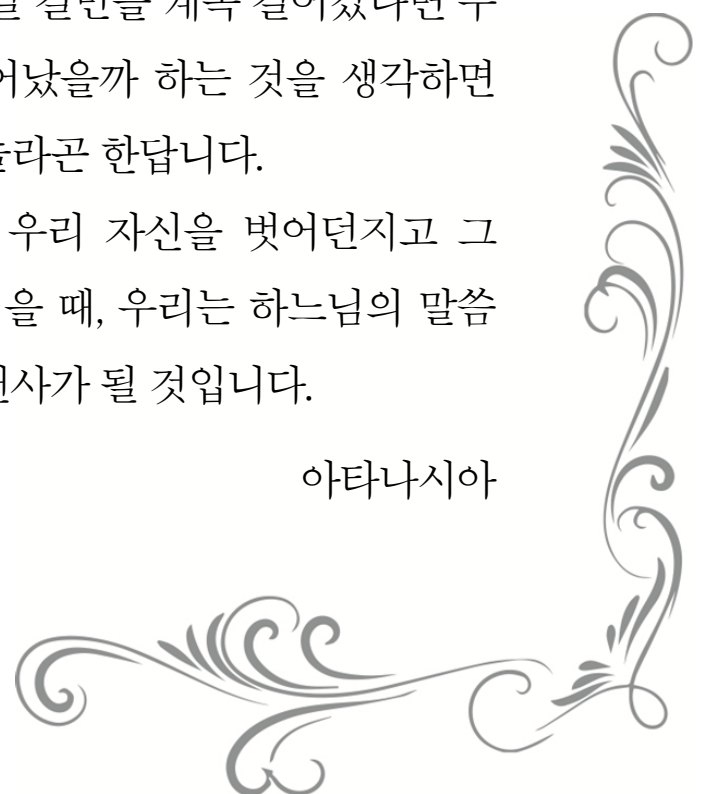


저는 제가 천사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가 겪고 있는 시련과 절망의 시간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총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 젊은이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잠시 멈추지 않았다면, 웃음과 샌드위치를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제 갈 길만을 계속 걸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자주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입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대교구

■ 대주교 일정

7월 4일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7월 11일 - 전주 성모안식 성당
7월 18일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7월 25일 -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온라인 줌 단체모임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모임이 어려워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 줌 단체모임을 통해 우리는 영적 양식을 취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지하는 시간에 따라 각 단체의 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성당 축일과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6월 27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축일을 맞아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명명 축일예배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성찬예배와 함께 진행된 세례성사에서 김학재(베드로)의 아들 김태우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보리스가 사도 바울로 성인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성찬예배 후에는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다니엘 신부님과 모든 신자들이 항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